

病院界 제2의 跳躍을 다짐합니다



大韓病院協會 회장 白 樂 院

丙寅年 새해를 맞아 전국 病院의 病院長 및 任職員 등 病院人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 乙丑年은 우리 病院界로서는 여러가지 뜻있는 일들이 많았던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廣惠院이 문을 연지 1백년이 되는, 즉 우리나라 病院 開院 1백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病院史의 1世紀를 기록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한해는 우리 病院界가 많은 일을 이룩 했습니다. 특히 本會가 關心을 갖고 추진한 醫療保險酬價 인상, 의료보험정책제 수정, 병원 상하수도료 인하, 防陷침구류 교체시기의 유보 등이 그러한 일들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病院協會로서도 그동안 숙원이었던 會館 건립 추진을 완료하는 한편 제26차 정기총회를 처음으로 지방인 釜山에서 개최하는 등 뜻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우리나라 병원 개원 1백주년 기념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는 우리 病院界가 처음으로 병원의 각 분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병원 분야별 관리향상 방안을 모색한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힘써 준 전국의 病院人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丙寅年 새해를 맞는 本人은 매우 감격적이고 벅찬 감회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病院史의 제2장을 여는 매우 뜻있는 자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病院史의 1백년은 우리 近代史가 말해주듯 격동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國民保健과 醫療發展에 피와 땀을 쏟아 온 선배 醫療人의 노고와 희생에 못지않는 배전의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病院人 여러분!

本人은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病院史의 제2장을 열므로

써 우리 病院이 다시한번 도약을 다지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째, 우리 病院界 弘報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홍보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자체 홍보수단을 개발, 적극적인 病院界 홍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病院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社會는 우리 病院에 대해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社會 일부의 視線은 이러한 우리의 희생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病院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病院은 국민보건과 건강향상을 위해 하루 24시간 불철주야 얼마나 어려운 희생과 봉사를 堪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社會가 病院을 보는 눈은 바로 잡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病院의 희생과 봉사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투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올바른 참모습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病院經營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 經營의 活路를 찾겠습니다. 현재 안팎으로 병원을 둘러싼 여건은 병원 존립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病院界는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보수가의 현실화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醫療의 質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높아만 가고 있는 점 등은 병원경영을 날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가 최대의 과제이므로 이의 현실화를 위해 총력을 집중시켜 병원경영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술연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病院은 지금까지 바쁜 진료시간을 쪼개서 국민보건과 의료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국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학술연구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病院이 국민으로 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내 보다 많은 분야가 참여하는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는 물론 의료보험 발전, 병원 경영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활동을 폭넓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째, 우리 病院界가 그토록 염원하던 本會의 자체회관 입주를 완료하여 협회 會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원병원 여러분의 정성과 염원이 결실을 맺어 오는 가을에는 현재 건립중인 자체회관에 입주함으로써 명실공히 이 회관이 전국 病院人의 모임의 광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같은 몇가지 중점사업의 추진을 통해 本人은 올해를 우리나라 病院史의 제2장을 여는 한편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성공적인 추진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病院人 모두가 一心團結하여 나아감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本人은 굳게 믿습니다.

丙寅年은 우리나라 病院界의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합시다.

丙寅年 새해에도 전국의 모든 병원의 발전과 病院人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1월 1일